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제569호

지면안내 02 보도  
또다시 '비대면' 맞닥뜨린 중운위

03 사회  
여전히 그늘진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삶

05 사람사  
조금 색다른, MBC 조현용 기자

08 광고  
제5기 수습기자 모집

## 2학기 수업운영방안 발표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시 '전면 비대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운영방안이 개편된다. 1학과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대면시험 필수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 ▲실시간 수업 출석 규정 ▲백신 공결제 도입 등이다. 성적평가는 1학과와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이뤄지며, 실험·실습 과목을 제외한 수업은 7주차까지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향후 변경 사항은 개강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내 구성원에게 공지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면시험 필수 실시' 조건이다. 지난 학기와 달리 과목당 1회 이상의 대면시험이 필수화됐다. 박용훈(학사운영팀) 차장은 "개강 이후,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한적대면수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대면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심의는 강의실 수용 인원 및 일별 총 등교 인원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박 차장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담당 교수자

에게 대면시험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특정 기간에 신청 과목이 몰리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대면수업 진행 조건'도 정부 지침과 본교의 실정을 고려해 개편됐다. 거리두기 4단계일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된다. 1~3단계일 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수업이 차등 허용되며, 일별 총 등교 인원도 조절된다.

'실시간수업 출석 규정'도 강화됐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화상 카메라를 활성화해야 하며 수업 당 2회 이상 출석 확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장은 "비대면수업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출결 관리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교육부가 '백신 공결제' 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본교도 백신 공결제 운영안을 발표했다. 백신 공결제란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접종 당일과 익일에만 공결이 인정되며 녹화 강의는 공결 처리가 불가하다. 시험 주간과 백신 접종

시기가 맞물리는 경우에 대한 방안은 향후 안내될 계획이다. 백신 접종 공결 처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신청서를 담당 교수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접종 후 7일 이내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이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기존 공결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비대면수업 관련 민원을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Q&A 게시판'과 'Hello, Mr. President'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3개 창구로 접수된 수강생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은 담당 교수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전달한다. 단, 수업 장비나 시스템 문제의 경우, 본교와 행정 부서가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악화로 2학기를 비대면수업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수업운영이 최대한 안정적인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방안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학사공지 및 e-class 공지를 지속적



▲본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2학기 수업운영방안'으로 확인하길 바란다. 또,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수업에 안전하게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본교, 3주기 평가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

지난 8월 17일, 본교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3주기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본 결과는 가결과이며, 최종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부터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다. 이번 3주기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어 진행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

했다. 일반대학 평가는 ▲발전 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총 136개의 일반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재정지원금은 재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대학에 균등하게 분배

되는 지원금이다. 2018년까지는 대학인문역량강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등 5개의 특정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2019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으로 사업이 통합돼 용도 제한 없이 대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혁신계획은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발전 계획이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새롭게 정립되는 본교의 발전전략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신입생·재학생의 유지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지충원율 미충족 시 그 규모에 따라 2023

년과 2024년 대학 정원 감축이 차등 권고되고,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조 처장은 "3주기 평가는 대학본부와 각 단과대학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해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또다시 '비대면' 맞닥뜨린 중운위 급변한 상황 속 나아갈 방향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았다. 2학기를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들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 이행완료 공약을 제외하고 이행 예정이거나 이행 불가한 공약을 중심으로 중운위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 총학, 수강권 관련 공약에 주력

총학생회 'EASY'(이하 총학)는 기존 공약이었던 ▲강의의 질적 향상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 조사 ▲학교 앞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 개선 공약과 함께 '정기 간담회 개최', '행사 및 이벤트 진행'을 추가이행할 예정이다.

총학은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강의의 질적 향상',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 조사' 공약 이행을 위해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 및 학과 별 조사를 진행해 문제 파악 후, 자체 회의에서 추려진 건의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앞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 개선' 공약은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 2건의 공지를 총학 공식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하계 방중에는 변경된 내용이 없어 별도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기 간담회는 두 달을 주기로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지속된다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추가로 관련 부서와 소규모 대면 간담회가 추진될 수 있다.

대동제 및 행사의 세부 진행 계획은 논의 중이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와 이벤트도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성정원 개설'과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공약은 이행되지 않는다. '한성정원 개설'의 경우, 학생 민원을 종합 관리하

**총학생회**

**😊 이행 예정**

- 강의의 질적 향상
-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 조사
- 학교 앞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 개선
- 정기간담회 개최
- 대동제 및 행사 진행

**😞 이행 불가**

- 한성정원 개설
-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총대의원회**

**😊 이행 예정**

- 대의원총회·상임위원회 일정 공개
- 예산안 회의 결과 항목별 공개
- 감사 OT 분기별 진행
- 학생자치기구 감사 결과 발표
- 한성대학교 통합 온라인 투표 진행
-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학생복지위원회**

**😊 이행 예정**

- 유학생들을 위한 학내 소식 외국어 공지
- 학교 인근 따릉이 설치 건의
- 배달존 설치 및 플랫폼 활성화
- 재개발 주변 구역 야간 순찰
- 한성 알코올 팔찌 제작
- 간식사업 진행

**동아리연합회**

**😊 이행 예정**

- 동아리 요구사항 게시판 개설
- 동아리 박람회 개최
- 동아리 안내 책자 배포
- 동아리방 개방
- 동아리 물품 대여 사업

'학생원스톱지원센터'가 본부 차원에서 신설돼 별도 개설은 어렵게 됐다. 해당 부서는 오는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회장은 "꼭 한성정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문의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서로 학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공약은 치안 등 학생 안전 문제로 이행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시험기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기획한 공약인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실습공간이 없어 공약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총대, 비대면 유지에도 모두 이행 가능

총대의원회 '파란'(이하 총대)은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대의원 관련 분야, 감사 관련 분야, 선거 관련 분야 공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의원 관련 분야 공약은 '대의원총회·상임위원회 일정 공개'와 '예산안 회의 결과 항목별 공개'다. 대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구체적 일정과 온·오프라인 여부는 추후 공지된다.

감사 관련 공약은 '감사 OT 분기별 진행'과 '학생자치기구 감사 결과 발표'다. 학생자치기구 감사는 완료됐으나, 감사결과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는 추후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공약은 '한성대학교 통합 온라인 투표 진행'과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다. '한성대학교 통합 온라인 투표 진행'은 2022학년도 총선거 투표 기간에 이행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는 2022학년도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될 때 개최된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의장은 "온라인 투표의 경우, 10월 중순 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전했다.

## 학복위, 대면 전환 여부 중요

학생복지위원회 '바다'(이하 학복위)는 '유학생들을 위한 학내 소식 외국어 공지', '학교 인근 따릉이 설치 건의' 공약을 포함해 간식 사업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7주차 이후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면 ▲배달존 설치 및 플랫폼 활성화 ▲재개발 주변 구역 야간 순찰 ▲한성알코올팔찌 제작 공약도 추진된다.

학복위는 '유학생들을 위한 학내 소식 외

국어 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본교 국제교류원과 협력해 영어, 중국어 공지를 올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학기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 인근 따릉이 설치 건의' 공약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해술(스마트 4) 학복위원장은 "지난 학기 전통 키보드 서비스 지역이 학교까지 확대되면서 따릉이 설치 건의가 안전상의 문제로 중단됐다.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주변 구역 야간 순찰'과 '배달존 설치 및 플랫폼 활성화' 공약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한성알코올 팔찌 제작' 공약은 팔찌의 색을 선택해 당일 마실 술의 양을 알릴 수 있다. 중간고사 이후 오프라인 축제 등이 진행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간식 사업과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정 위원장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공지하려 한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동연회, 동아리 활성화 위해 집중

동아리연합회 'ONLY'(이하 동연회)는 기

존 공약이었던 '동아리 요구사항 게시판 개설' 공약과 함께 '동아리 박람회 개최' '동아리 안내 책자 배포' 공약을 이행 예정이다.

'동아리 요구사항 게시판 개설'은 동연회로 접수된 재학생 질문 중 다수 중복된 질문을 게시판에 공유하는 공약이다. 지난 학기 들어온 질문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예정이며,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게시판은 개설되지 않는다. '동아리 박람회 개최' 공약은 e-class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연회는 동아리연합회 활동, 회칙, 동아리 행사나 평가, 감사 예시 자료집 등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나기리(컴공 3) 동연회장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리방 개방은 7주차 이후 등교가 허용되면 본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학기 이행하지 못한 '동아리 물품 대여 사업 활성화' 역시 추후 상황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나 회장은 "학생장학팀과 상의해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교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 학술정보관, '한성 북니버스' 개관

지난 8월 2일, 본교 학술정보관이 메타버스 도서관 '한성 북니버스(이하 북니버스)'를 개관했다. 북니버스는 증강현실과



▲북니버스 속 학술정보관의 1층 로비

3D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도서관이다. 이는 서울권 대학 최초로 시행했으며, 학내 구성원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술정보관을 이용하게 하고자 기획됐다.

북니버스는 'ZEPETO'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학내 구성원은 북니버스를 통해 학술정보관을 직접 방문한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앱에서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 열람 ▲전자책 및 오디오북 이용

▲퀴즈 및 게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서로 팔로우하거나 음성 채팅을 할 수 있어 타이용자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북니버스를 체험한 김태림(뷰티 3) 학생은 "생각보다 더 실제와 똑같이 구현돼 놀라웠다. 학술정보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자(학술정보관) 팀장은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며 학술정보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북니버스를 통해 학술정보관의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10@naver.com

## IPP 성과평가서 A등급 취득

본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0년 IPP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이하 IPP 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A등급)으로 선정됐다.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참여 학생에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본 사업은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로 구성된다. 장기현장실습은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업 인턴제 도이며, 일학습병행제는 4학년 실습생이 졸업 후 일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IPP 성과평가는 ▲조직역량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참가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됐다. 평가비중은 장기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가 각각 30%, 70%를 차지했으며,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로 이뤄졌다.

인홍열(IPP사업단) 팀장은 "이번 IPP 성과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이유는 본교의 지원과 IPP사업단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본교 학생들이 진로탐색은 물론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지식재산 리더스 수강생 모집

본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오는 8월 20일부터 '2021학년도 2학기 지식재산 리더스(이하 지식재산 리더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식재산 리더스는 지식재산·창업에 대한 실연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시 ▲지식재산 실전캠프 참여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응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월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활동을 모두 완료한 학생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된다. 또, 성과에 따라 장학금과 비교과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총 6명이다. 단, 활동 장학금 지급으로 2학기 휴학생은 신청 불가하다.

선발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면접평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에 따라 생략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강수경(지식재산교육센터) 연구원은 "졸업 후 관련 대학원이나 기관 진출 시 좋은 이력이 될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 제12기 한성포래상담자 '한울' 모집

본교 학생상담센터가 오는 9월 1일까지 '한성포래상담자(이하 포래상담자)'를 모집한다. 포래상담자는 포래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돕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상담센터로 안내한다. 지원은 3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가능하며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다. 포래상담자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지원자는 9월 17일부터 약 2달간 ▲포래상담자가 되기 위한 교육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를 통해 내담자가 되어 보는 경험 ▲포래 상담 활동과 그에 대한 활동 보고서 제출 ▲센터

근무자에게 교육을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퍼비전 모임 등의 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주어진 활동을 모두 마친 참여자에게는 최대 70pt의 비교과 포인트와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천민우(학생상담센터) 연구원은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포래상담 활동은 장기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참여자의 보람도 클 것"이라며 지원을 독려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 여전히 그늘진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삶

지난 6월 26일, 청소노동자 A씨가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휴게실에서 숨을 거뒀다. 당일 서울 최고 기온은 34.6°C였다.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분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선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토록 오랜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아가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처우 중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휴게시설'로 꼽힌다. 육체노동자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지하실, 주차장, 계단 아래에 위치해 있다. 실제로 2018년 8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서울 소재 14개 대학 및 3개의 빌딩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조사한 결과, 건물 202곳 중 55곳이 지하에, 50곳이 계단 밑에 설치돼 있었다. 휴게시설이 지하 또는 계단 밑에 위치하면 통풍이 어렵고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경비노동자가 근무하는 87곳 중에는 그 어느 곳도 근무공간과 휴식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육체노동자의 '높은 업무강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육체노동자 한 명이 방대한 업무를 짊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현(비정

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대표는 "이번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대학은 정원 200명이 넘는 기숙사 한 동을 1명에게 맡겼다. 노동강도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청소노동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경비노동자 또한, '건물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청소와 경비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는 대학의 '고용 방식'에서 기인한다. 대학이 육체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으로 나뉜다. 직접 고용은 대학이 노동자를 대학 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노동자들은 대학과의 소통에서 상당부분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간접 고용은 대학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대학이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면 용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학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이 간접 고용 방식을 채택한다.

간접 고용 방식에서는 노동자들이 휴게시설 체계선 등의 요구사항을 용역업체에 전달하더라도 곧바로 해결이 불가하다.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원청인 대학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는 정책과 사업 방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원청의

허가 없이는 하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육체노동자가 간접 고용될 경우 노동자가 근무 중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대학 측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도연(한국산업노동학회) 간사는 "간접 고용 방식은 대학이 근로자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대학이 관리나 부담을 덜려는 방편으로 간접 고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이 육체노동자의 처우를 무시하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업장 휴게시설·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직접 고용 방식을 도입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가 2018년 3월 청소노동자 760명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이번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사례에서 보듯 정년이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접 고용된 육체노동자 중에서도 6개월 혹은 1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자의 충분한 인력 배치가 해결돼야 실질적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간사는 "많은 대학 내 육체노동자는



▲5평 남짓한 공간, 에어컨 배기관까지 설치된 모 대학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고연령이다. 담당구역에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이 육체노동자에게 부족한 인력으로 넓은 공간을 청소·경비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일부 전문가는 대학 내 육체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간사는 "육체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항목에 추가로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학 내 청소·경비노동자가 하루라도 학교에 없다면, 깨끗한 시설과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다. 조 부연구위원은 "육체노동자들이 대학에서 사라지면 학내 구성원들의 불편이 즉각 가시화될 것"이라며, "대학 내 육체노동자는 필수인력이다. 학내 구성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교육·연구는 육체노동자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안전 사각지대 농인 캠퍼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최근 대학가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11월 571건으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는 작년 12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안전관리 규정에는 ▲이동장치의 등록제 시행 ▲속도제한 ▲통행로 시범 설치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 설정 ▲공용 충전시설 설치 ▲안전 교육 및 영상 제작 배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강화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대학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로 인해 캠퍼스 주변 차도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사건 처리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도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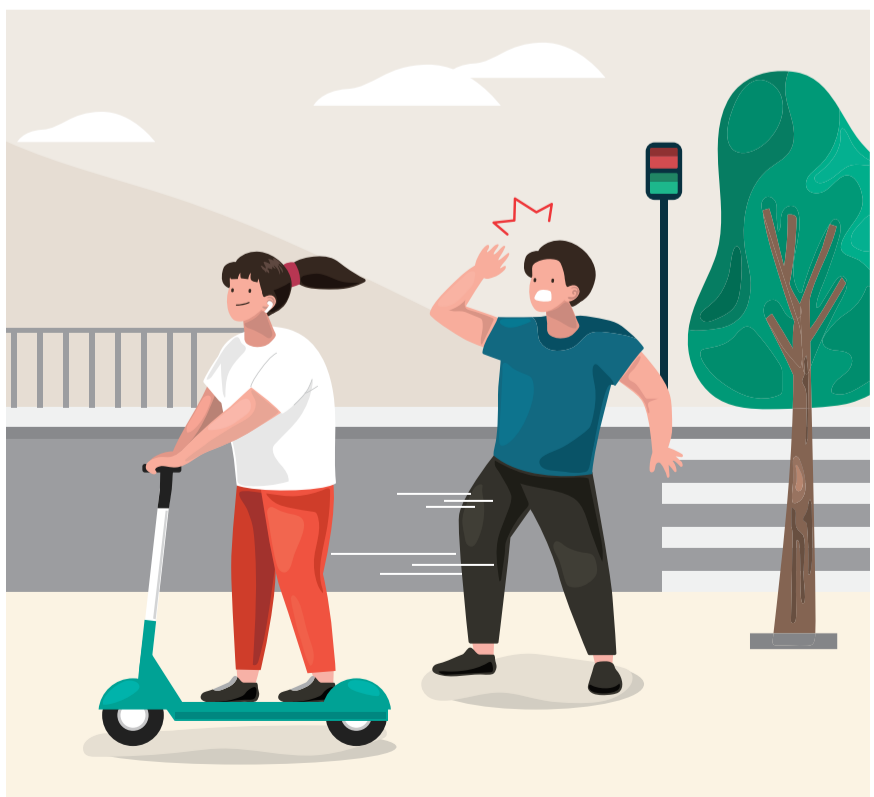
농인 것이다. 박신형(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상대방 과실이 명백해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결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이 늘고 있다. 본교에서는 정문 근처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대학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도 대학 내 전동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전남대학교 역시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등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교내 진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전북대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송완상(전북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주무관은 "규정을 발표한 후 대부분의 학생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현저히 줄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학교에서 규정을 만든다 해도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 본부가 주도적으로 규정을 만들기 보다 학생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 교수는 "학교의 규제만으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막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전동킥보드 규정 및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가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 무노조 경영 종지부 찍은 삼전, 노사관계 개선의 시작될까

지난 12일, 삼성전자(이하 삼전)의 첫 노사(勞使) 단체협약(이하 단협)이 체결되면서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렸다. 창사 이후 52년 만이다. 삼전과 삼전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은 지난해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올해 7월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동교섭단에는 기존 조직돼 있던 4개의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모두 참여했다.

창사 이래 노조가 설립되고 사측과 소통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사측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역대 회장들의 '노조 설립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영방침 때문이다. 노조 활동이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삼전 노동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8년 3개의 노조가 조직됐고 삼전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인 단협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9년, 4번째 노조인 '전국삼전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단협 체결이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협이 역대 회장들이 이어왔던 전근대적 노사관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협 체결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삼전이 사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단

협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두 사건의 시점이 맞물린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남은 사법 처리가 결정된 이후에도 삼전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성실히 단체협상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많다. 이번 단협 체결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이다.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삼전은 현재 노동 3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노동3권을 준수하는 기업문화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택(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명예 교수는 "기존 공동교섭단이 요구했던 조항 중 일부 조항만을 합의했기 때문에 향후 교섭이 지속돼야 한다"며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체협약: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항을 합의한 협약. 직장 내 최상위 지위 규범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된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거비는 보증금 828만 원, 월세 45만 원에 달한다. 자취하는 청년의 수요가 많은 대학 주변 주택가에서 집을 구해보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렇다면 평균 주거비보다 낮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어떤 환경일까? 청년의 현실적인 주거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집을 구해봤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김기현 기자 kimgihun30@gmail.com

## 열악한 현실에 돌아선 발걸음

집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부동산에 방문해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간단한 사진이라도 미리 보고 싶은 마음에 발품을 팔기 전, 앱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집을 고르려면 먼저 매물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예산은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주어진 예산을 훨씬 초과해 '원룸' 유형을 선택한다. 원룸에서도 거래유형에 따라 금액과 매물이 천차만별이다. '전세'는 역대급 금액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나온 매물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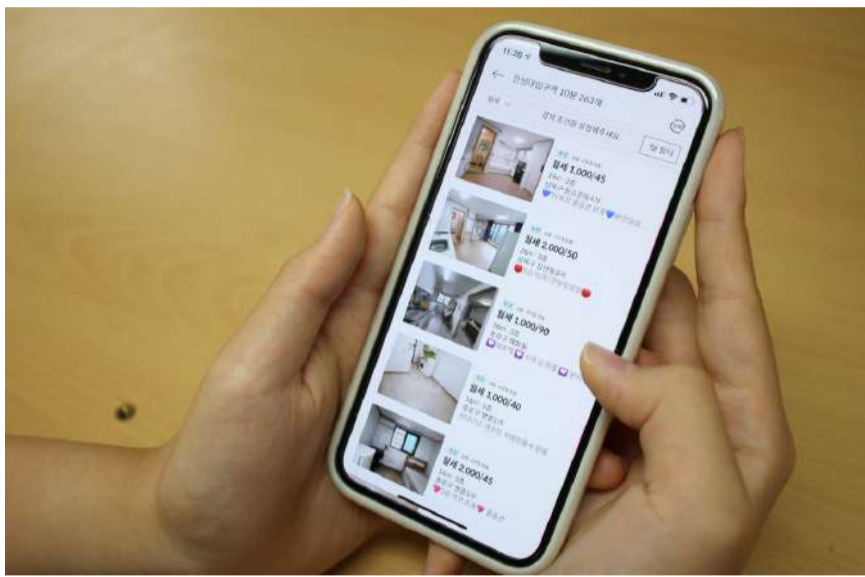
지역을 설정하는 창을 눌러 '한성대입구역'을 입력한다. 가격이 다양한 총 263개의 매물이 주러진다. 앱 상단에 있는 '검색 필터'를 눌러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한다. 그러자 입주 가능한 집이 29개로 줄어든다.

### #수고비를 요구받은 집

추천순으로 정렬된 화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매물을 클릭한다. 선택한 집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방 사진이 담긴 창이 열린다. 사진 속에 놓인 낡은 가구와 누렇게 바래진 벽지가 눈에 띈다. 화장실은 한 평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크기다. 구조는 복도식으로, 문을 두고 오른쪽은 세면대, 왼쪽에는 변기가 있다. 샤워하기에도 비좁아 보인다. 다른 집을 고르기 위해 창을 닫는다.

여러 매물 사이로 비교적 넓어 보이는 집을 발견한다. 이번 집에는 두 개의 큰 창문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실제로 방문하면 사진으로 본 것보다 좁을 수도 있으니, 찾아가 보기로 한다.

앱 하단에 있는 '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라는 버튼을 클릭하자 중개사와 전화가 연결된다. "보증금과 월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이라 설명하자, "좋습니다. 수고비는 꼭 주셔야 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예상치 못한 수고비 요구에 말문이 막힌다. 수고비(중개 알선 수수료)는 실제 거래 계약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중개물 소개·알선 등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수고비 문화를 지양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일부 중개사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수고비가 얼마나 나올지 짐작할 수 없어 우



▲주어진 예산을 뛰어넘은 보증금. 대부분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선 전화를 끊는다. 보증금과 월세가 아닌 수고비는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음에 들었던 집을 포기하고 다른 집을 찾는다.

### #PC방이었던 집

학교와 가까운 거리의 집을 구해보기로 한다. 앱을 통해 방문하기로 약속한 매물은 한성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집 앞에서 중개사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다. 방에 들어가니 심하게 흡입이 난 나무 책상과 낡은 갈색 장동 2개가 보인다. 방 안의 공기가 탁하게 느껴져 창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니 작은 직사각형 창문의 테두리가 모두 실리콘으로 덮여 개방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중개사가 설명해준다. "원래 PC방으로 사용하던 장소에 벽을 세워 원룸을 만들었어요. 창문까지 교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베란다에 있는 창문은 열립니다."

창문을 확인하기 위해 베란다로 들어간다.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붙어있다. 창문 아래쪽을 밀어 전부 다 열어도 겨우 30cm 정도다.

베란다 오른쪽에는 화장실도 있다. 놀란 기자에게 중개사는 PC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집의 구조가 특이하다고 설명한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청록색 물때로 뒤덮여 있고, 배수구는 녹이 슬었다. 변기 안은 검은 물질이 가득해 위생이 좋지 않아 보인

다. 다른 집을 더 둘러보겠다며 발길을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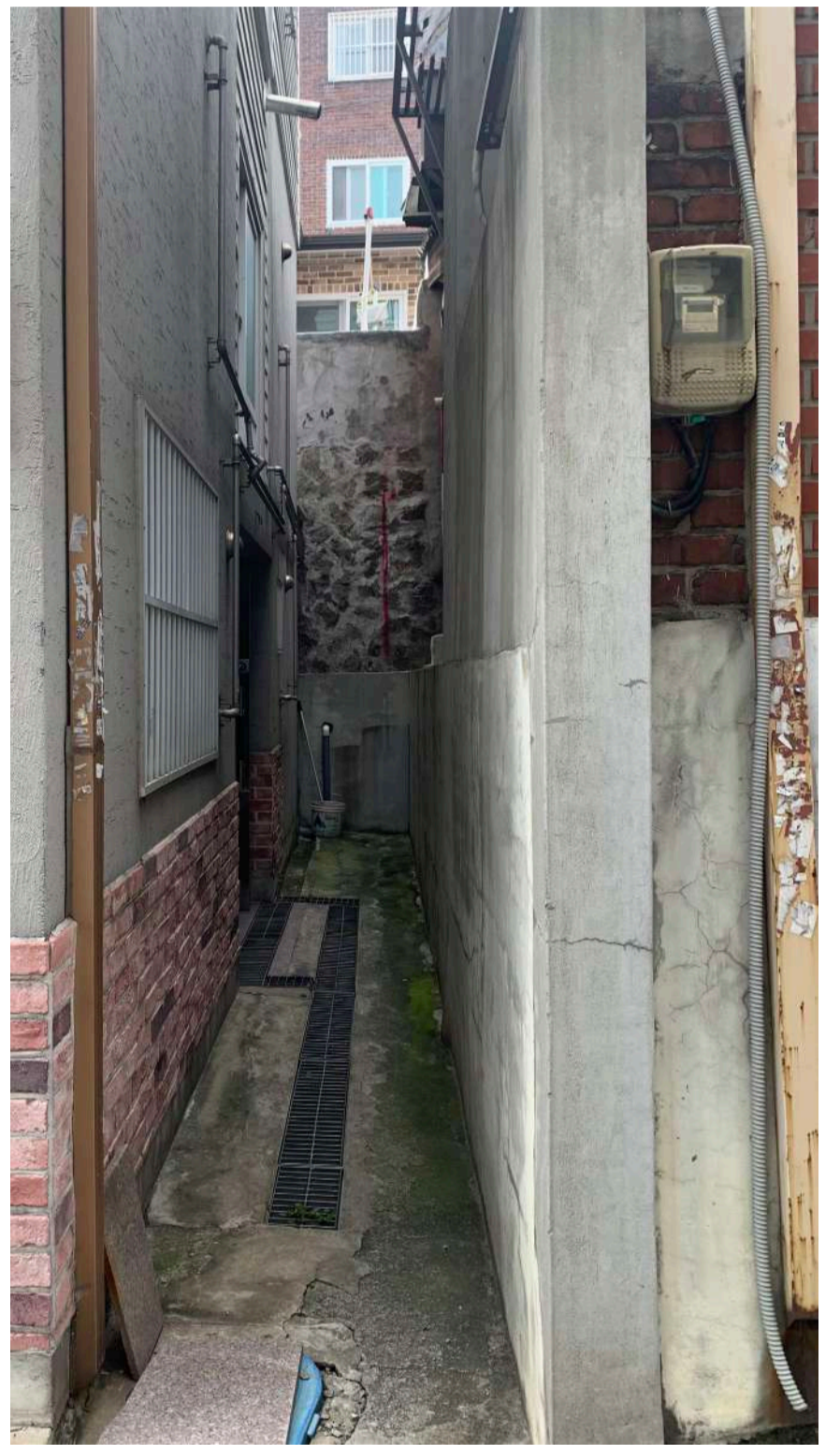
### #방법창이 없는 집

이번에는 변화가 근처의 집을 보기 위해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로 향한다. 새로운 중개사를 만나 건물로 들어간다. 공동 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방이 나온다. 현관문을 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창문이다.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주차된 차량의 바퀴와 행인들의 다리가 보인다. 창문이 지면과 맞닿아 있어 바람이 불자 방 안으로 흠과 먼지가 날린다. 사방이 건물로 막혀있어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건물 외관을 살피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2층과 3층에는 방법창이 설치돼 있지만, 반지하 창문에는 방법창이 없다. 중개사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자 "요즘 시대에 반지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그러나 방법창이 없으면 외부에서도 창문을 열 수 있고, 게다가 집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 #악취가 진동하는 집

다음 집을 방문하기 위해 가파른 길을 오른다. 생각보다 경사가 높은 탓에 숨이 찬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개사가 가리킨 방향은 비좁은 골목길이다. 약 1m의 공간을 두고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있



다.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구조다.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1층에 사는 주민의 생활 소음이 사방에 울려 퍼진다. 현관 한편에는 깨진 대리석 조각이 널브러져 있고, 다른 한편에는 누군가 방치해둔 쓰레기봉투 더미가 쌓여있다. 2층에 있는 집을

보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와중에도 쓰레기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온다. 현관을 열고 집에 들어간다. 이번 집은 그동안 살펴본 매물보다 깔끔하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보니 눈 앞에 펼쳐진 것은 풍경이 아닌 반대편 건물의 갈색 벽돌뿐이다. 햇빛은커녕 바람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기자가 길을 오르는 모습. 매일 오르내리기에 가파른 높이다.

“하루종일 돌아다녔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다른 층과 달리 반지하층 창문에는 방법창이 없다.

위의 집들을 포함해 총 17개의 집을 둘러봤음에도 마음에 드는 매물은 없었다. 부동산을 가지는 중개사를 따라간다. 문 앞에서 만난 중개사의 지인은 기자에게 묻는다. "얼마 생각해?" 중개사는 답을 가로채며 "싼 집 구해, 500짜리"라고 말한다. 학생의 입장에서선 500만 원도 큰돈인데, '500짜리 싼 집'이라는 중개사의 말에 주눅이 든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는 좋은 환경의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 철저한 보안과 쾌적한 환경의 집을 꿈꿨지만,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부모님 지원 없이는 집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7개의 집을 보는 사이 하루가 끝나버렸다. 결국 계약서 없이 부동산을 나오는 빈손에 마음이 허해진다.



# 조금 색다른, MBC 조현용 기자

‘택배 아저씨 외에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남자입니다.’ ‘살다 살다 기사를 덕질할 줄이야, ‘사랑해, 형’. MBC의 인기 유튜브 채널 ‘소비더머니’ 영상에 남겨진 댓글이다. 댓글 속 주인공은 콘텐츠 이상으로 사랑받는 MBC 조현용(38) 기자다.

소비더머니는 ‘어차피 쓸 돈, 알고나 쓰자~!’라는 채널 설명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탄탄한 스토리 라인으로 전하는 영상 콘텐츠다. 구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27만 명을 넘어선 상태며,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콘텐츠의 조회수는 625만 회를 상회한다. MBC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성공을 이끈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기자’, 조현용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 매체로 세상을 배우던 소년, 기자가 되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학창시절 진로 고민을 멈추지 않았다. 법조계에 뜻이 없었던 그에게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전공 공부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 초기, 무작정 다양한 기업의 문을 두드리던 조 기자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학창시절, 그는 매일같이 TV와 신문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던 학생이었다. 그는 기사를 읽던 자신의 모습과 감정이었던 언어능력을 살려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언론사 시험에 집중적으로 응시한 끝에 2007년 MBC 보도 기자로 입사했다.

“입사를 하고 ‘거창한 이념이나 구호 대신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자’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시비를 다루기보다는 시청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죠. 기사를 쓸 때 접해 한 것들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불편함에 집중했어요.”

실제로 그는 기사를 통해, 경제적 빈곤자에게 에어컨 보급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재활병원이 추가로 건립돼야 한다’고도 보도했다. 뉴스 방송 이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계획이 발표되는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조 기자는 미세하더라도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기사를 쓰고자 했다.

그가 가장 오래 몸담은 부서는 경제부였다. 경제부에서 뉴스 속 코너인 ‘머니트렌드’를 진행하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슈를 다뤘다. 그는 “사람들이 머니트렌드를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경제 소식을 접함으로써 일주일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을 바랐다”고 말한다. ‘뉴스의 연성화’라는 비판이 가해질 수 있지만 누구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상관없다는 것이 조 기자의 전언이다.

“시청자의 필요와 관심에 집중하겠습니다. 팩트를 퍼즐 맞춰서 보다 나은 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기자 소개 문구처럼, 조 기자는 담백하고 솔직한, 무엇보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기자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다. MBC가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 총파업을 실시했고 그 기간 동안 기자 해직과 인사 발령이 강행된 것이다. 조 기자 역시 동료의 해고를 목격했고 파업에 참여했다.

“정치적 압박도 힘들었지만,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같이 밥도 못 먹는 사이가 된 게 더 힘들었어요. ‘언론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녔다면 이런 문제를 겪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사실 아직도 뭐가 맞고 틀렸던 건지는 헷갈려요.”

파업 이후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조 기자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TV 매체의 영향력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바일의 영향력이 지대해진 것이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고민을 거듭했다. “이전에는 MBC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컸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반응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기자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매체의 영향력과 개인의 실력을 동일시하는 통념 때문에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매체가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반응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의 의미를 찾는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했죠.”

### 소비를 생각하던 기자, 콘텐츠의 성공을 이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고민을 거듭하던 조 기자는 2018년 가을 MBC 디지털부에 자원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 역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디지털부는 한쪽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었지만, 조 기자는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는 디지털부에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 경쟁력 있다’고 느꼈다. 실시간으로 공개적인 도마 위에 오르는 조회수나 댓글 등의 평가는 결국 소비자를 더 생각하게 했다.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에 유리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된다는 말이다.

“기성 언론은 시청자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변화를 시도하지만 고담중론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았죠. 보고 싶은 뉴스보다는 봐야 하는 뉴스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시청자의 반응보다는 사내와 업계에서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저는 공급자 위주라 아닌 소비자에 집중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조 기자는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와 ‘14F’ 일사예프(이하 14F)의 성장을 함께 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14F 속 새로운 콘텐츠 구상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다. 조 기자답게 소비자는 당연히 콘텐츠의 고려 대상

이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의 실생활을 바꾸는 건 ‘정치’보다 ‘돈’이라고 생각했다. 대중의 관심사 역시 돈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의 경제부 시절 경험도 살릴 수 있었다. 소비더머니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소비더머니는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브랜드’라는 껍데기를 빌려 이야기 그 자체를 전한다. 브랜드에 얽힌 사람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여기서 브랜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건, 학교, 인물 등을 포괄한다. 대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부(富)’의 역사를 파헤치며 세상의 변화를 말한다. 매 영상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은 주제의 발전 과정이다. 사람이려면, ‘성장 과정’이 되겠다. 그 속에서의 재미있는 일화, 숨겨진 위기와 시련 등 분절된 정보를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성해 전한다.

소비더머니가 유튜브 채널 14F에 업로드 되던 당시, 해당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열풍을 일으켰다. 채널 독립을 요구하는 댓글도 거의 매일 달렸다. 결과적으로 ‘흡입력 있는 콘텐츠’라는 평가를 받으며 채널 독립에 성공했다.

“과분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인기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와 영상이 주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종종 해요. 시작 전에도 확신이 없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이 들거든요. 다만, 기자가 만들었다거나 제가 나와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까요.”

콘텐츠의 성공은 의외의 변화를 야기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고 다른 방송사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거나 광고 제의까지 들어온 것이다. 현재는 OTT 플랫폼인 ‘WATCHA(왓차)’에도 소비더머니 콘텐츠 유통을 시작하며 발을 넓혀가고 있다. 조 기자는 이러한 외부의 관심과 평가에도 부담을 느끼지만,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훨씬 크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최선을 다했을까’, ‘왜 이전 이렇게밖에 못 썼을까’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유튜브 콘텐츠의 주기가 길지 않은 탓에, 소비자의 반응이 미지근하면 콘텐츠가 소멸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내가 제대로 못 해서 그런가?’와 같은 괴로운 사고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힘을 주는 존재는 다른 아닌 소비더머니의 시청자 및 구독자다. 조 기자는 이들을 ‘귀인’이라 칭한다.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고마움을 표하는 애칭이다. 그는 영상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고 좋아요와 답글을 남긴다. ‘영상 속에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을까’하고 댓글을 확인했던 과정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됐다.

조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를 찾아갈 것이다. 메시지 전달 방식보다 메시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공의 길’이라 여겨지는 조직의 사다리를 오르기보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한다.

“입사 당시, 10년 후의 본인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10년이 지나서 편지를 읽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색다른 존재가 되고 싶었더라고요. 지금도 색다른 기자가 돼보자는 생각은 유효해요. 저는 언론사에서 성공이라 여겨지는 전형일률적 방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한 명의 인생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  
매 순간 확신은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해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제18회 아시안게임 현장을 보도 중인 조현용



▲머니트렌드에서 경제 이슈를 전하는 조현용



▲소비더머니에서 댓글읽기를 진행한 조현용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외선주의보

뜨거운 여름이 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자외선차단제(이하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가 뜨거운 여름에만 자외선이 강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외선은 일 년 내내 우리의 피부를 손상시켜, 차단제는 사계절 필수품이다. 대체 자외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 걸까?



## 피부를 공격하는 창, 자외선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320~400nm), UVB(280~320nm), UVC(100~280nm)로 나뉜다. 이 중 UVA와 UVB는 지구의 대기층을 뚫고 들어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UVC는 오존층에서 완전히 흡수돼 소멸된다.

UVA와 UVB는 각각 우리 피부의 표피층과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의 세포 분자 결합을 깬다. 세포분자가 깨지면 멜라닌 색소가 분출된다. 이는 점, 기미, 검버섯 등 다양한 색소 질환을 유발한다. 이은주(연성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교수는 “적당한 멜라닌 색소는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자외선으로 생성된 멜라닌 색소는 피부에 침착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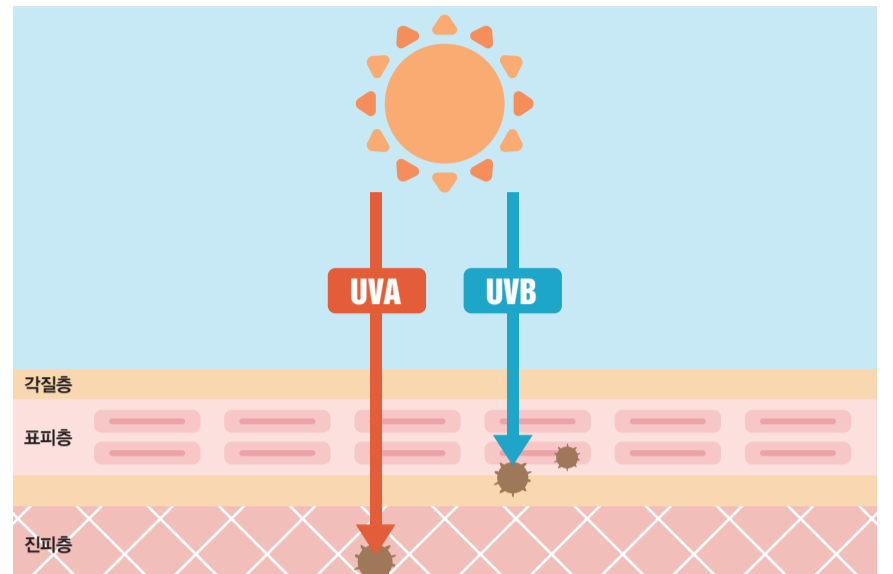
또한 UVA와 UVB가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 생성이 촉진된다. 활성산소는 체내의 여러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산화력이 강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피부 조직의 콜라겐이 산화된다. 이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는 등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강신욱(메조팜) 이사는 “자외선은 피부의 탄력 섬유를 파괴시킨다. 자외선으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는 수분이 부족해 피부에 주름이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

## 자외선을 막는 방법, 차단제

그렇다면 차단제는 어떤 원리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것일까? 차단제가 자외선을 막는 원리는 크게 유기적 원리와 무기적 원리로 나뉜다. 유기적 원리는 화학적 방법을, 무기적 원리는 물리적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유기적 원리를 활용한 자외선을 막는 차단제를 유기자차라고 한다. 유기자차에는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어 자외선을 흡수한다. 그리고 흡수한 자외선을 열에너지로 변화시켜 피부 밖으로 내보낸다. 유승혁(뷰티메이커스) 대표는 “자외선을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피부 온도가 높아져 유기자차를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적 원리로 자외선을 막는 차단제는 무기자차라고 불린다. 무기자차의 주성분은 티타늄디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로 빛을 산란시키고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성질로 인해 무기자차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생성해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낸다. 따라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아 피부 자극이 덜하다.



## 차단 효과 미비한 마스크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 마스크로 가린 부분은 마스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천의 밀도가 높아 자외선 투과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마스크 내의 섬유는 자외선을 튕겨내지 못해 완벽한 차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흰색 마스크를 착용

한 경우 마스크에서 반사된 자외선이 눈이나 코등으로 흡수된다. 결국 햇빛으로부터 들어온 자외선과 반사된 자외선이 합쳐져 색소침착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강 이사는 “다가오는 가을은 여름보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 햇빛이 피부에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며,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 없이 차단제 사용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꿀의 변신은 ‘무죄’

최근 꿀을 일러 짜먹는 ‘꿀젤리’ 먹방 콘텐츠가 각종 SNS에서 인기다. SNS 속 사람들은 500ml 병에 담긴 노란 꿀젤리를 4~5병씩 짹짹 짜먹는다. 끈적하고 줄줄 흘러내리던 꿀이 어떻게 쫄쫄한 식감으로 변했을까? 또, 꿀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꿀이 꿀젤리로 변하는 원리와 그 성분대에 대해 알아보자.

## 얼지 않아 탄성한 꿀젤리

꿀젤리는 꿀의 어는점이 낮다는 특징을 이용해 만들어진다. 어는점이란 액체인 물질이 고체로 상태변화하는 온도를 말한다. 하나의 분자로 이뤄진 순물질은 어는점이 일정하다. 하지만 꿀처럼 다양한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 어는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는 물질의 조성이 어는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강영종(한양

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용매에 섞인 용질”의 양에 따라 어는점이 결정된다. 순수한 물질에 다른 용질을 넣을수록 어는점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꿀에는 당분과 물,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물질이 섞여있다. 용매인 물에 당분과 기타 성분이 녹아있는 형태다. 꿀의 함량을 보면, 당분이 70% 이상, 물은 18% 가량을 차지한다. 용질인 당분의 양이 많아 꿀은 쫄쫄한 형태로 남게 된다. 한상미(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연구원은 “꿀은 당도가 높고 점액질로 돼 있어 얼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꿀은 아무리 낮은 온도에서도 완전히 얼어붙지 않는다. 영하 20℃에 꿀을 보관할 경우, 쫄쫄 얼어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느리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영양 넘치는 꿀 속 당분

그렇다면 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꿀의 70%를 차지하는 ‘당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꿀의 당분은 포도당(25~36%), 과당(36~45%), 설탕 및 텍스트린(2~3%)으로 구성된다. 이 중 포도당과 과당은 단당류다. 단당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라 추가 분해과정 없이 우리 몸에 바로 흡수된다. 소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꿀을 섭취하면 빠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한정아(상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꿀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뇌 활동도 촉진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꿀 당분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뤄져 있어, 적은 양으로 고열량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쌀밥 10g에서 약 2.9g의 탄수화물과 12.9kcal

의 열량을 얻을 수 있지만, 꿀은 10g으로 약 8.2g의 탄수화물과 30kcal의 열량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단순당인 설탕과 비교했을 때, 꿀은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특징도 있다. 꿀의 혈당지수는 55지만, 설탕은 68이다. 혈당지수가 낮을수록 당을 섭취했을 때 당수치가 느리게 상승해 인슐린 분비가 줄어 체지방 축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는 꿀의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적은 양으로도 면역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도 과유불급이다. 한 교수는 “꿀과 같이 빨리 흡수되는 당류가 포함된 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열량과다로 인한

체중증가 외 혈당 유지 기능이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루에 꿀차 1~2잔이 적당하다”고 당부했다.

\* 용매 : 용질을 녹여 용액을 만드는 물질

\*\* 용질 : 용매에 녹아 있는 물질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한성대신문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hansungnews

· 삼 학 송 ·

#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이번 2학기 역시 학생들로 북적북적한 캠퍼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또다시 코로나19로 접철된 개강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이 허용됐던 과거와 달리, '전면 비대면' 체제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과목도 대면 수업이 불가능해졌다.

다른 대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4단계 하에서는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 도입 이후 꾸준히 침해받던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학들이 새 학기를 맞아 발표한 운영 방안들 모두 말 그대로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일 뿐,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 3월에도 대학들은 단순히 수업 운영 방식만 온라인으로 변경한 채 급하게 개강을 맞이했다. 온라인 강의가 가지는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부 교수는 시스템 작동 방법 등이 미숙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수업별 시험 시간이 겹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한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면·비대면 여부가 늦게 공지되기는 부지기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등록금은 '비대면 수업' 이전과 같은데, 강의의 질은 저하됐

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질의응답도 원활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질문을 남겨도 답변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몇몇 교수자가 과거 녹화한 영상을 재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학의 임시방편에 그친 대책들을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측 불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코로나19에 적응하기에 충분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라 입을 모았다. 대학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고 동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수업방식과 시험운영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세분화된 방침을 학생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지 않은지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대학은 교수자가 적절한 강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권고를 넘어 꾸준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환경 및 시스템 교육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그것이 참된 교육기관의 역할이다. 더 이상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대학이 그동안 경험한 시행착오를 딛고 하루빨리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혜림 편집국장



## 꽃들만 덩그러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취소됐다. 작년에는 온라인이라도 학위수여식이 열렸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행사마저 취소된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문 앞에 꽃 판매대가 자리 잡았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상상권 1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도 이전처럼 많은 인파가 졸업생을 축하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비록 적막한 학위수여식이었지만 사회에 내딛는 그들의 첫발은 꽃길 위로 향하길 기원한다.

박성희 기자

### ■ 기자수첩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취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본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본질을 잃은 지 오래다. 현재 대부분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학생이 강의를 제대로 수강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시간 화상 강의는 캡을 켜지 않아도 되고 녹화 강의는 재생 버튼만 눌러 놓으면 출석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학생의 강의 숙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비교과 포인트(이하 포인트)가 지급된다.

### ■ 흔들리는 본질을 굳게 잡으려면

학술 소모임 등 학과 활동이나 동아리도 활동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공연 관련 활동은 무대논커피 연습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점수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일부 학생은 현 상황을 별다른 노력 없이 포인트를 모을 기회라 생각한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학술 소모임 추천 사유로 '쉽게 포인트를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비대면 상황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활동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포인트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상황은 다소 포인트의 본질을 되찾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이 요구된다.

김지윤 기자

### ■ 의화정

##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맞이하는 개강, 벌써 2년째

지난 20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분간 수도권은 4단계다. 올 2학기에 대면 수업을 기본 방침으로 했던 대학들도 잠정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해를 넘기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거리두기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데, 백신 접종률 증가 소식을 들으면 '위드 코로나'에 따른 활동 증가가 떠오르기도 한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닌 세상이 되었다.

개강을 앞둔 교수자의 고민도 늘어난다. 중간고사 때까지만 비대면 우선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다음에는 대면으로 전환할까?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괜찮을까? 온라인 강의가 더 좋다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면 수업을 하면 영상을 돌려보는 복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생들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강의실에 못 오는 학생들은 녹화 강의를 보면 될까? 강의실 수업과 녹화 수업에 따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수업 이외의 캠퍼스 활동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개강이 다가오면 물리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줄어든다. 수강신청 일자에 따라 우리 전공 수업은 몇 명이나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정원이 마감되어 미처 수강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연락하기도 하고, 수강 인원이 부족해서 아예 개설이 안 될 것 같은 강의도 보인다. 그래도 개강 전까지 온라인 개강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린다. e-class에 업로드가 잘 되었는지, 재생이 잘 되는지, 불필요한 소음이나 끊기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영상만 올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메모 기능을 이용해 추가 설명을 달아 둔다. 이렇게 몸이 더 바빠지면 머리는 오히려 정리가 된다.

수업의 완성도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만나 이뤄진다. 학생들을 어떻게 만날까.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할까. 수업용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하나. 그래도 직접 만나야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닐까.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낸 만큼 경험치가 쌓였다고 믿는다.

이제 개강이다!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온다.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아야겠다. 수강생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 만나 물어볼 수 있는 개강이다.

박지영(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교수

### ■ 낙산에 올라

몇 해 전부터, '필름카메라 사진찍기'가 취미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 발달로 좋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과 DSLR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름카메라와 그에 사용되는 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필름카메라 자판기도 나타나고, 사라졌던 필름인화 및 현상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필름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이나 블로그에 올리며 공유하는 문화가 향유된다.

다시 유행하는 것은 필름카메라뿐만이 아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는 말처럼, 과거의 유행은 약간의 변형과 함께 현재로 돌아온다. LP판과 턴테이블, 음악, 패션 등도 재유행해 돌아온다. 요즘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뉴트로'라는 단어는 이런 흐름

### ■ 과거를 발판 삼아 나아가는 오늘

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옛 음악을 듣고, 옛 사진을 꺼내 본다. 과거의 문화를 돌아보고 다시 사용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현재가 불안정하니 과거의 평화로웠던 기억,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물건과 음악 등을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국이 가져다 준 불확실성이 이같은 현상에 부채질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미래를 꿈꾸기보다 과거를 돌아보며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경험 속에 있었던 희망을 찾아 불안한 심리 상태를 진정시킨다. 몇몇 사람들은 과거에 머무르

는 것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과거가 없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뉴트로 문화처럼 지난 경험을 통해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며 바빠 달리는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과거의 추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또한 쌓아 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정비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살아가면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테다. 그렇다면 불안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최가은(인문 2)

### ■ 기자사령

임 편집국장 신혜림(인문 2)  
부편집국장 김지윤(사회과학 1)  
정 기자 박성희(인문 3)

면 편집국장 박희연(사회과학 4)

퇴 정 기자 권노은(인문 1)  
박지연(뷰티 1)  
박한석(CT 2)

### ■ 동정란

이종복(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이 교수는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개최된 The 2021 World Congress in Computer Science, Computer Engineering, & Applied Computing(CSCE'21) 국제학회에서 "Revisiting The Out-of-Order Superscalar Processor Core"를 발표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관 박선옥 편집국장 신혜림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한성대신문사

# 제51기 수습기자 모집

2021.08.09(월) ~ 09.03(금)

##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  
(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 지원방법

-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인스타그램 @hansungnews
-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